

현안과 과제

한반도 평화지수, 2012년 4/4분기
남북 관계 회복세 지속

Executive Summary

□ 한반도 평화지수, 2012년 4/4분기 남북관계 회복세 지속

(종합 평가) 2012년 4/4분기 기대지수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가 지난 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지수는 39.1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남북 간 긴장상태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2012년 4/4분기 기대지수도 51.9로 전기 대비 14.2p 대폭 상승함에 따라 3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과 대립의 공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의 수차례 NLL침범 등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기정부가 유연한 대북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2기 정부가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 유연화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특징) 2012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5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3/4분기 전문가 평가는 지난분기의 '긴장고조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27.6으로 지난 분기의 27.2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가 평가지수의 현상유지는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 움직임의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5일 북한의 제12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6.28 경제개선조치가 실제로 발표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반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는 3분기에 이어 대폭 상승하였다. 2012년 4/4분기 기대지수는 37.7에서 51.9로 14.2p로 상승하여, 지난 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10.0p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대선후보들이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차기정부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정량분석지수의 전반적인 상승은 정치 군사 부문의 '이벤트 지수(전기 대비 15.4p 증가)와 경제 사회 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전기 대비 11.5p 증가)의 동반 상승에 기인한다. 특히 '이벤트 지수는 2011년 4분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3분기 만에 반등했다. 이는 남한의 UFG 훈련에 따른 대남위협과 NLL 침범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핵문제 비공식 접촉과 민간 차원의 대북수해지원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 격차가 다시 확대됨으로써,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객관적 실적치인 정량분석지수의 격차는 22.9p로 전 분기 9.8p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는 최근 북한의 6.28 경제개선 조치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수해지원이 무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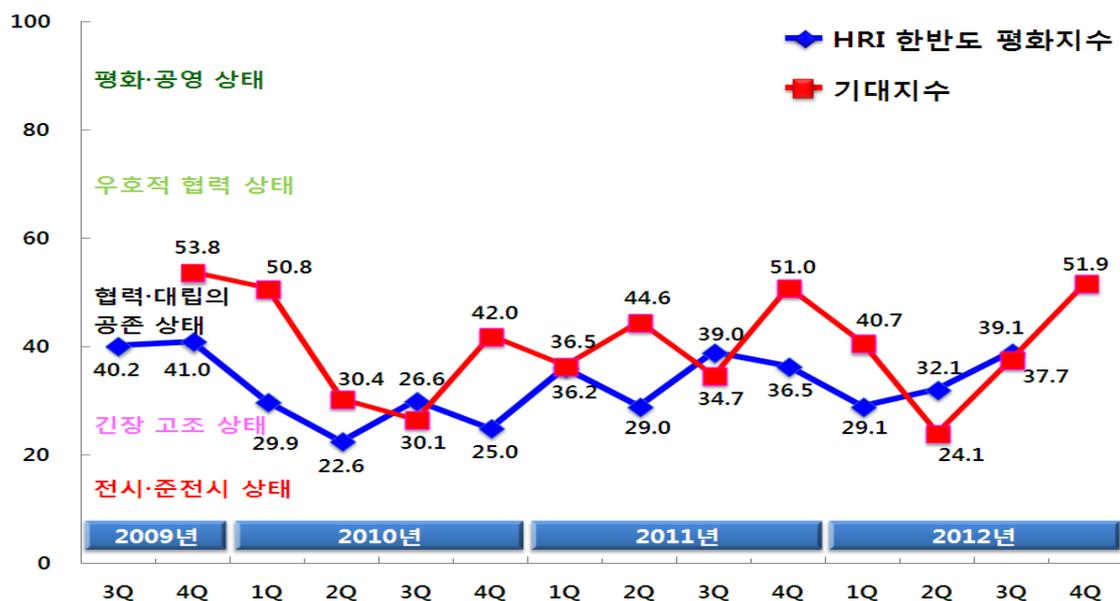
다섯째, 성향별 평가에서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지난 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현상유지로 평가했고, 다음 분기의 전망은 진보 성향이 가장 높게 상승했다. 진보 성향의 4/4분기 기대지수의 상승폭은 18.8p로, 이는 보수 성향의 8.2p와 중도 성향의 10.3p에 비해 약 2배에 달했다. 진보적 성향의 기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대선후보 모두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보수를 비롯한 중도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2012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 (종합 평가) 2012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7.0p, 14.2p 큰 폭으로 상승

- 이는 북한의 NLL침범 등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기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 실행 기대감과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2기 정부가 한국의 대북 유연화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2012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39.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상태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2/4분기 32.1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7.0p 상승한 39.1을 나타냄으로써 전분기의 상승세를 유지함
- 기대지수도 2분기 연속 10.0p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의 2012년 4/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4.2p 상승한 51.9로 나타나 남북관계는 3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과 대립의 공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2009~2012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 (특징 분석) 전문가들의 기대지수와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 모두 10.0p 이상의 큰 폭으로 상승

- 3/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 분기와 비슷한 27.6을 기록한 반면,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전 분기 대비 13.5p 대폭 상승한 50.5를 기록함
 - 지난 분기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던 정량분석지수가 상승세로 크게 반전하였으며, 이는 민간단체의 대북수해지원 원활을 비롯해 4년 만에 재개된 북일 회담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도 지난 분기의 상승세를 이어서 큰 폭으로 상승,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북한의 수차례 NLL 침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호간의 무력도발이 없었던 것을 비롯해, 차기정부가 유연한 대북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한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 격차가 다시 확대됨으로써,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
 -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간의 격차(| 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는 22.9p로, 지난 분기 9.8p에 비해 2배 이상 격차 확대
 - 이는 최근 북한의 6.28 경제개선 조치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수해지원이 무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2010~2012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교류지수		
		이벤트지수				
'12-3분기	39.1 (▲7.0)	27.6 (▲0.4)	50.5 (▲13.5)	51.7 (▲15.4)	49.2 (▲11.5)	51.9 (▲14.2)
'12-2분기	32.1 (▲3.0)	27.2 (▲8.6)	37.0 (▽2.5)	36.3 (▽5.7)	37.7 (▲0.8)	37.7 (▲13.6)
'12-1분기	29.1 (▽7.4)	18.6 (▽13.3)	39.5 (▽1.6)	42.0 (▽9.4)	36.9 (▲6.1)	24.1 (▽16.6)
'11-4분기	36.5 (▽2.5)	31.9 (▽8.1)	41.1 (▲3.1)	51.4 (▲3.9)	30.8 (▲2.3)	40.7 (▽10.3)
'11-3분기	39.0 (▲10.0)	40.0 (▲18.2)	38.0 (▲1.9)	47.5 (▲2.3)	28.5 (▲1.6)	51.0 (▲16.3)
'11-2분기	29.0 (▽7.2)	21.8 (▽9.3)	36.1 (▽5.2)	45.2 (▽2.8)	26.9 (▽7.7)	34.7 (▽9.9)
'11-1분기	36.2 (▲11.2)	31.1 (▲15.6)	41.3 (▲6.8)	48.0 (▲15.2)	34.6 (▽1.6)	44.6 (▲8.1)
'10-4분기	25.0 (▽5.1)	15.5 (▽14.9)	34.5 (▲4.7)	32.8 (▽2.1)	36.2 (▲11.6)	36.5 (▽5.5)
'10-3분기	30.1	30.4	29.8	34.9	24.6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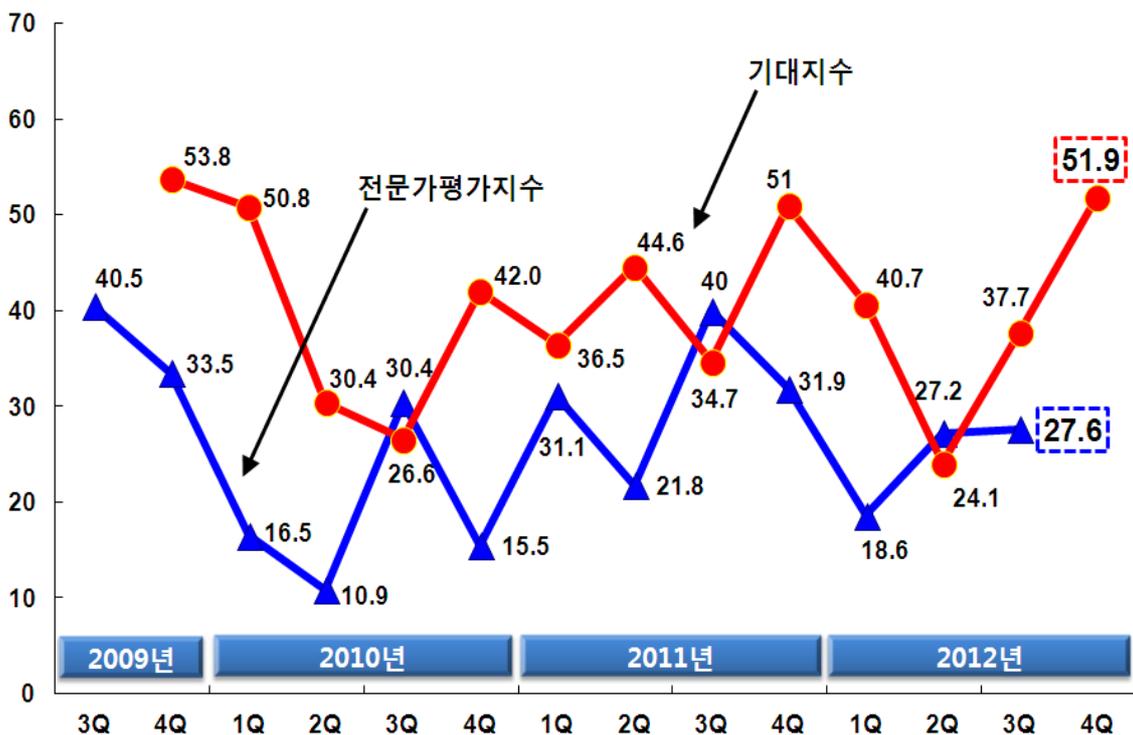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 (항목별 평가)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가 큰 폭 상승하여 객관적 지표가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를 상회

(1) 전문가평가지수 (2012년 2분기 : 27.2 → 2012년 3분기 : 27.6)

- 총 104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 3/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와 비슷한 27.6을 기록하였음
 - 전문가 평가지수의 현상유지는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 움직임의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5일 북한의 제12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6.28 경제개선조치가 실제로 발표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4.2p 상승한 51.9를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의 2012년 4/4분기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은 3분기에 이어 대폭 상승
 - 이는 대선후보들이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차기정부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09~2012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2) 정량분석지수 (2012년 2/4분기 : 37.0 → 2012년 3/4분기 : 50.5)

- 3/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7.0보다 13.5p 대폭 상승한 50.5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의 전반적인 상승은 정치 군사 분야의 '이벤트 지수'(전기 대비 15.4p 증가)와 경제 사회 인도적 지원 분야의 '교류 지수'(전기 대비 11.5p 증가)의 동반 상승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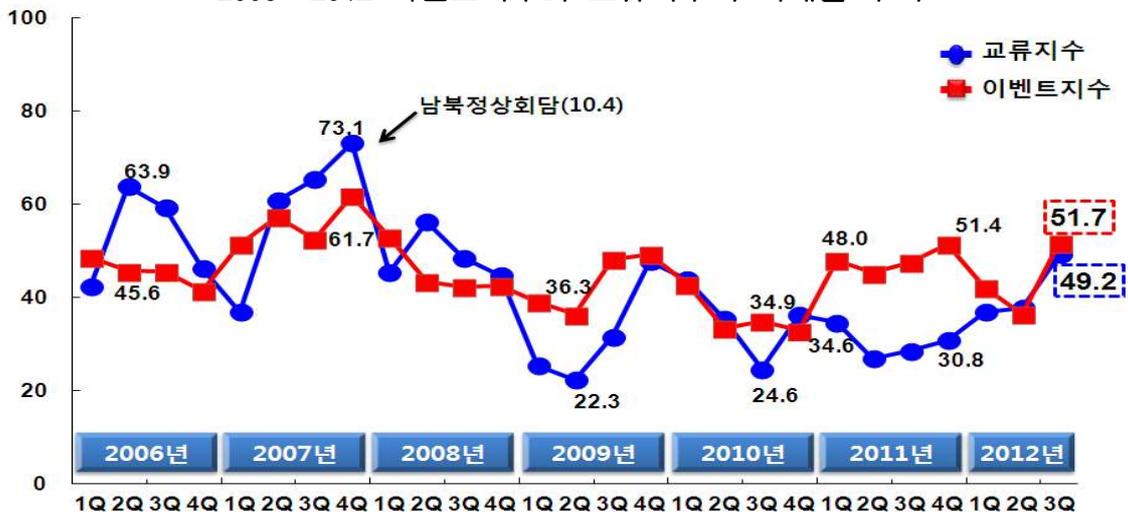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2년 2/4분기 : 36.3 → 2012년 3/4분기 : 51.7)

- 이벤트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15.4p 상승한 51.7을 기록하여 201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개선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
- 남한의 UFG 훈련에 따른 대남위협과 NLL 침범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핵문제 비공식 접촉과 민간 차원의 대북수해지원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② 교류지수 (2012년 2/4분기 : 37.7 → 2012년 3/4분기 : 49.2)

-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11.5p 상승한 49.2를 기록하여 전기의 상승세를 유지
- 교류지수의 상승은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 증가(2011년 1~8월 : 11억 193만 달러→2012년 1~8월 : 12억 6,947만 달러)한 것에 기인

< 2006~2012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 평가는 모두 지난 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현상 유지로 평가했고, 다음 분기의 전망은 진보 성향이 가장 높게 상승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0.4, 28.6, 26.6으로 지난 분기의 30.1, 29.5, 26.1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지난 분기의 크게 회복됐던 전문가 평가지수는 크게 나아지지도, 악화되지도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현상 유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성향별 특성을 고려하면 진보 성향의 기대지수가 다른 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진보 성향의 4/4분기 기대지수의 상승폭은 18.8p로, 이는 보수 성향의 8.2p와 중도 성향의 10.3p에 비해 약 2배에 달함
 - 한편, 진보적 성향의 기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대선후보 모두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보수를 비롯한 중도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2. 3분기	30.4 (▲0.3)	49.2 (▲8.2)	28.6 (▽0.9)	47.6 (▲10.3)	26.6 (▲0.5)	54.4 (▲18.8)	27.6 (▲0.4)	39.1 (▲7.0)	51.9 (▲14.2)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12. 1분기	17.9 (▽19.1)	21.9 (▽23.0)	17.8 (▽9.8)	22.6 (▽17.1)	21.1 (▽11.0)	29.4 (▽8.7)	18.6 (▽13.3)	29.1 (▽7.4)	24.1 (▽16.6)
'11. 4분기	37.0 (▽2.5)	44.9 (▽5.7)	27.6 (▽12.3)	39.7 (▽12.0)	32.1 (▽5.2)	38.1 (▽12.3)	31.9 (▽8.1)	36.5 (▽2.5)	40.7 (▽10.3)
'11. 3분기	39.5 (▲11.5)	50.6 (▲11.2)	39.9 (▲23.1)	51.7 (▲23.4)	37.3 (▲14.6)	50.4 (▲13.8)	40.0 (▲18.2)	39.0 (▲10.0)	51.0 (▲16.3)
'11. 2분기	28.0 (▽1.9)	39.4 (▽4.2)	16.8 (▽16.2)	28.3 (▽18.8)	22.7 (▽3.5)	36.6 (▽0.7)	21.8 (▽9.3)	29.0 (▽7.2)	34.7 (▽9.9)
'11. 1분기	29.9 (▲15.5)	43.6 (▲11.3)	33.0 (▲8.8)	47.1 (▲5.6)	26.2 (▲15.8)	37.3 (▲2.0)	31.1 (▲15.6)	36.2 (▲11.2)	44.6 (▲8.1)
'10 4분기	14.4 (▽19.2)	32.3 (▽14.4)	24.2 (▽6.1)	41.5 (▲0.7)	10.4 (▽19.0)	35.3 (▽3.4)	15.5 (▽14.9)	25.0 (▽5.1)	36.5 (▽5.5)
'10 3분기	33.6	46.7	30.3	40.8	29.4	38.7	30.4	30.1	42.0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yhlee@hri.co.kr, 02-2072-6222)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2-2072-6221)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 분	종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융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2년 11월 5일~15일 (10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등 북한관련 전문가 104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조사 내용

□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7.9	27.7
2. 그렇지 않다	43.3	47.3
3. 보통이다	28.8	24.1
4. 그렇다	0	0.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4.0	19.6
2. 그렇지 않다	52.9	49.1
3. 보통이다	22.1	24.1
4. 그렇다	1.0	7.1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8	7.1
2. 그렇지 않다	36.5	22.3
3. 보통이다	42.3	42.9
4. 그렇다	15.4	27.7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0	0.9
2. 그렇지 않다	16.3	11.6
3. 보통이다	32.7	33.9
4. 그렇다	50.0	51.8
5. 매우 그렇다	1.0	1.8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5.0	22.3
2. 그렇지 않다	53.8	50.9
3. 보통이다	20.2	25.0
4. 그렇다	1.0	1.8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8	11.6
2. 그렇지 않다	24.0	43.8
3. 보통이다	38.5	31.3
4. 그렇다	32.7	13.4
5. 매우 그렇다	1.0	0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3.1	23.2
2. 그렇지 않다	51.0	46.4
3. 보통이다	24.0	29.5
4. 그렇다	1.9	0.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0.9
2. 그렇지 않다	16.3	22.3
3. 보통이다	28.8	28.6
4. 그렇다	49.0	43.8
5. 매우 그렇다	2.9	4.5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	1.8
2. 그렇지 않다	29.8	20.5
3. 보통이다	43.3	50.0
4. 그렇다	25.0	26.8
5. 매우 그렇다	0	0.9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8	2.7
2. 그렇지 않다	38.5	36.6
3. 보통이다	39.4	47.3
4. 그렇다	17.3	13.4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8.3	21.4
2. 그렇지 않다	55.8	47.3
3. 보통이다	25.0	13.4
4. 그렇다	1.0	0.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8	8.9
2. 그렇지 않다	17.3	41.1
3. 보통이다	40.4	35.7
4. 그렇다	37.5	14.3
5. 매우 그렇다	1.0	0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4.0	27.7
2. 그렇지 않다	48.1	49.1
3. 보통이다	27.9	23.2
4. 그렇다	0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8.3	15.2
2. 그렇지 않다	51.9	58.9
3. 보통이다	27.9	25.0
4. 그렇다	1.9	0.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0.2	25.0
2. 그렇지 않다	47.1	46.4
3. 보통이다	29.8	24.1
4. 그렇다	2.9	4.5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8.3	23.2
2. 그렇지 않다	52.9	53.6
3. 보통이다	27.9	22.3
4. 그렇다	1.0	0.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3분기(%)	2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8	11.6
2. 그렇지 않다	17.3	40.2
3. 보통이다	43.3	32.1
4. 그렇다	32.7	16.1
5. 매우 그렇다	1.0	0
계	100.0	100.0